



21 July
**2011 EU - 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France



한·유럽학술회의(EKC2011) 참관기

녹색성장을 향한 한·유럽 컨퍼런스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와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유럽 학술회의(EKC 2011)가 열렸다. 'Toward Green Growth'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 전창훈)가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 석준원),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이정환), 재오스트리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한만옥) 등 재유럽과협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박상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필자는 EKC 2011의 학술위원으로 전문학술분야 준비를 담당하였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과 유럽의 공동 이슈는 '녹색성장'

이번 행사에서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기조연

설, 전문학술발표, 울트라 프로그램, 차세대프로그램 등이 열렸다. 총 370여 명(가족포함 580여 명)의 과학기술자가 참여하였는데, 한국에서 약 110명, 프랑스 100여 명, 독일 70여 명, 영국 60여 명, 오스트리아 및 기타 국가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창훈 재불과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개회식에서 이상목 과총 사무총장이 박상대 과총회장의 초대말씀을 전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차관, 박홍신 주불대사가 행사를 축하했다. 리처드 바우처 OECD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성장은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조를 통해 성취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해법이 녹색성장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준경 부원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



길 박원선 독일 라이프니츠 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wpark@ifm-geomar.de
 글쓴이는 서울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 라이프니츠 해양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독일 라이프니츠 해양연구소에서 기후모델개발과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 1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리차드 바우처 OECD 사무처장 2 포스터 발표장 모습

책을 소개하고 녹색전쟁에서 한국이 녹색기술개발과 환경기술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의 한화진 부원장은 한국의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적응사업, 탄소거래 등 개별정책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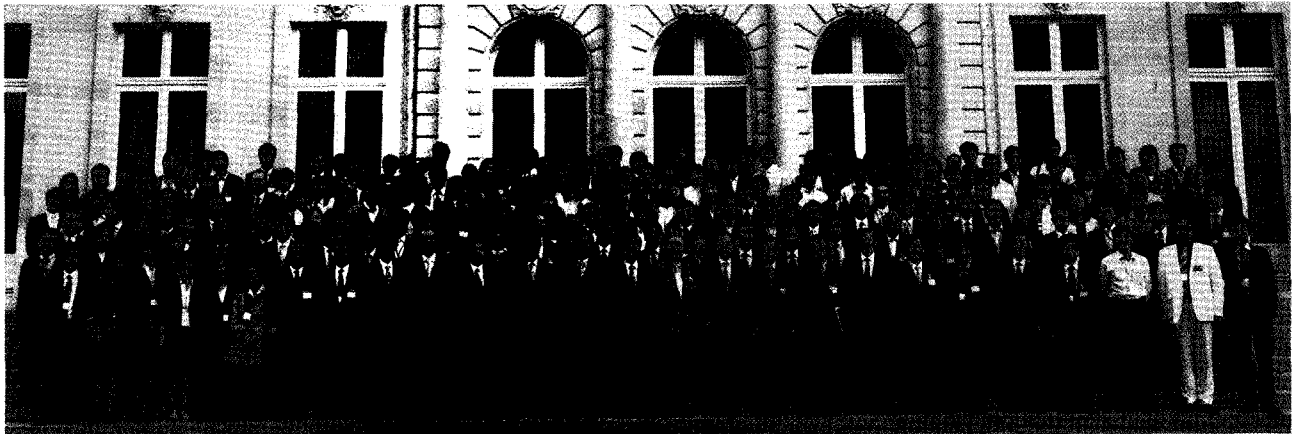
전문학술발표는 바이오과학, 정보기술, 나노·로봇기술, 에너지·환경의 네 세션으로 나뉘어져 구두와 포스터 발표로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발표에는 총 8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필자가 참석했던 에너지·환경세션은 모든 포스터 발표자가 3분씩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지구환경부터 재생에너지, 환경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요약 발표하여 서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효율적이었다. 전문학술발표를 위해 유럽의 4개 과협에서 선정된 12인의 학술위원들로 구성된 EKC 학술위원회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각 학문분야 및 국가별 특성을 살린 세션을 유도하였다. EKC 2011 학술위원장인 재불과협의 최경일 박사는 “유럽의 개별과협이 돌아가며 EKC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술발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문적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과협 전체를 아우르는 학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술위원회의 장기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오전 기조강연 마지막 발표자인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장피에르 빌로트 박사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도호쿠 지진의 심해성 저주파 및 천해성 고주파 지진 특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오후 세션에서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에 근무하는 김종

호 변호사는 한·유럽 FTA 발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특히 국가기간산업 등에 과학기술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콜폴리테크닉의 클로딘 에르망 교수는 ‘여성과 과학’ 주제 발표를 통해 유럽 여성과학자의 권리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정책 등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차세대 과학기술자이자 2006년 과총에서 주최한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GF)에 참여했던 이수연(재불과협 YGF 이사) 씨는 YGF의 활동을 소개하고, 2세 과학도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유럽에서 결실을 맺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석준원 재독과협회장은 독일에서 개최할 2012년 EKC의 주제는 ‘The Future’로서 지금까지 독일·영국·오스트리아·프랑스에서 연이어 개최된 EKC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미래’를 진단한다고 안내하였다.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는 주OECD대한민국 대표부(대사 허경욱)가 ‘2011 국제기구 및 글로벌기업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KC 참여인원 이외에 별도로 등록받은 300여 명의 유럽의 한인 대학생 및 유학생 등이 주로 참여하여 국제기구 및 한국기업 진출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의 진출관련 수기 발표, 국제기구 인사담당자의 채용관련 정보제공의 장이 열렸다. 또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회, 기초기술연구회(KRCF), 삼성종합기술원(SAIT), SK이노베이션, POSCO, 현대자동차 등 연구기관 및 기업설명회가 있었다.



▶▶ EKC 2011 참석자 기념촬영

EKC 기간 중 울트라 프로그램도 열려

EKC 기간 중에는 과총이 개최한 울트라 프로그램이 열렸다. 울트라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뛰어난 과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해외의 과학기술 개발동향, 성공사례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기준 울트라 프로그램 자문위원장(전 교육부총리)과 김수삼 자문위원(토지주택연구원장)이 진행한 이번 울트라 프로그램에는 환경·에너지분야에서 프랑스 ITER 전창훈 선임연구원이, 문선통신분야에서 최진호 영국 웨일스스완지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전창훈 박사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한국과학기술의 행보에 관한 제안을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과 독일은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고 재생 에너지 분야기술에 투자할 것이며, 프랑스와 한국은 원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한국은 원자력에만 안주하지 말고 독일, 일본의 정책과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염려가 가중되어 빠른 공사기간과 저렴한 원가가 더 이상 원자력 수출의 최대 경쟁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폭넓은 검토와 수용, 그리고 홍보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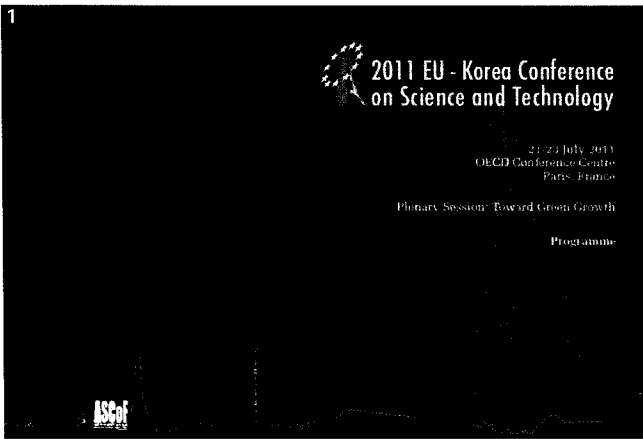
이번 EKC 행사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재유럽 한국 과학자를 선정·표창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은 김재금 독일 파더보른대학교 교수, 과총 회장상은 배성은 영국 서리대 연구원과 현윤주 오스트리아 빈 공대 연구원, 매일경제 회장상은 최용준 프랑스 OECD NEA 원자력기구 연구원이 수상하였다.

한·유럽 기업간 네트워크 위한 '녹색산업체 포럼'

EKC 2011에서는 특별히 한·유럽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녹색산업체포럼이 EKC 본 행사 이전인 20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이 행사는 녹색산업에 관한 한·유럽의 기관, 연구소, 산업체의 노력과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투자 등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었다. 녹색산업체 포럼은 EKC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주불한국 대사관, SK이노베이션, 한국기계연구원이 후원하였다. 이틀에 걸친 포럼은 생태도시, 그린카, 녹색정책 및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재생가능에너지 전망, 생의학 및 화장품 산업, 한·EU FTA를 통한 산업기술협력 및 열린 기술혁신 등의 6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한국 및 유럽 기업, 연구소, 기관 등에서 총 1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기업 간, 개인 간에 활발한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였다.

재불과협의 최경일 박사와 함께 이번 산업 포럼을 주도적으로 이끈 재영과협의 김도원 박사는 "기존의 EKC가 학술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어서 행사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기술의 수요자인 기업들이 참여할 공간이 부족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은 한국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사업 방향이나 국제협력 등을 창출하고, 이러한 행사가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KC 행사 이후에는 과총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가 열렸는데, 재독과협이 참여한 신재생 에너지 분과, 재영과협의 IT분과 모임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서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 동향과 개개 재생에너지별 발전방향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 1 EKC 2011 프로그램 표지 2 OECD센터 행사장 모습

성장하는 EKC

이번 행사는 동반가족을 포함하여 총 580여 명이 참여해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번의 프랑스 행사를 거치면서 EKC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질적 성장을 거두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이번 EKC 2011의 개최과협인 재불과협은 특별히 선진경제모임의 중심인 OECD센터를 행사지로 정하고, 한국과 세계경제의 성장모토인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를 소화하기 위해 과학부터 경제, 법률에 이르기까지 주제에 부합하는 한·유럽의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여 참가자가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행사를 준비한 재불과협의 최용준 박사는 한국·유럽, 정부·연구기관·기업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주제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유럽에 있는 4개 과협은 EU라는 테두리안에 있지만 각 국가의 서로 다른 특성을 또한 갖고 있다. EKC 2011은 이러한 유럽 4개 과협의 색깔이 그대로 녹아들 수 있게 학술위원을 공동으로 구성한 EKC 학술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학술발표와 산업체 포럼을 구상하게 함으로써 유럽과협 간의 협력을 더욱 다지게 하였다.

EKC는 재유럽과협의 노력, 과총의 지원, 기관과 기업의 후원, 한국 유럽회원들의 참여로 성장하고 있다. 2008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EKC가 열리기 이전에 유럽의 과협은 2006년 프랑스에서 '재유럽한국과학기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재구라과과협에서 현재의 4개 과협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하였던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과 지원이 지속되어 EKC가 네트워크를

넓히고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된다. 그러나 자원자로 구성된 과협회원 만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거대해진 행사를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EKC가 한층 더 수준 높고 풍성한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사기획, 진행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지원 확대와 유럽과협의 지혜가 필요하다.

EKC 2011 행사에 등록하면서 받은 각종 인쇄물에서 풍기는 강한 인상과 열정은 EKC의 발전하는 모습과 연결됨을 보았는데, 이번 행사의 로고 및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을 맡은 프랑스 H.V.COM사의 이정근 아트디렉터의 설명을 인용하며 참관기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이 지면을 통해 EKC 2011을 위해 특별히 수고하신 재불과협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재불과협의 로고는 프랑스와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성, 그리고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 첨성대와 에펠탑은 두 국가에서 과학기술의 상징성, 역사성, 대중성, 문화적 상징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면서 두 국가의 역사적 증인으로 영원함을 가지고 있다. 이 로고를 기본으로 유럽국가에 머무는 한국 과학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별들이 힘차게 움직이도록 하여 첨성대와 에펠탑의 상징물 위에 집목시켰는데, 재불과협이 장을 마련하고 많은 한국·유럽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분들이 이 상을 펼치는 모습이라고 할까?

또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첨성대와 에펠탑 이미지는 한국에서 유럽의 행사 주체지인 프랑스 파리까지 끊어지지 않는 연결성,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역사적인 소망을 담고 있다.”